

실로암 한인침례교회

Siloam Korean Baptist Church

April 19, 2026, 10:30 a.m.

부활절 세번째 주일 (Year A)

Third Sunday of Easter (Year A)



Immanuel Baptist Church

69 Saunders Road, Newport News, VA 23601

담임목사 장선욱 Senior Pastor Sean Chang, 757-867-8676

seanchang78@gmail.com

www.siloamkbc.org

모임 안내 Gatherings

주일 예배 Lord's Day Worship Service (Korean/English) 10:30 am
수요 성경 공부 Wednesday Bible Study (Korean) 8:00 pm via Zoom
Zoom Meeting ID: 401 799 0718

예배 순서 WORSHIP ORDER

예배 인도자 Presider

I 모이기 Gathering

교회 소식 Life of the Church 인도자 Presider

예배 기도 Invocation..... 인도자 Presider

찬양 Let's Praise!다같이 All Together

H246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I've Cast My Heavy Burdens Down

H405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What a Fellowship What a Joy Divine

C1028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Just Let Me Say

신앙 고백 Affirmation of Faith다같이 All Together

삶을 되돌아보기 Time to Reflect다같이 All Together

평화의 나눔 Sharing Peace다같이 All Together

중보 기도 Intercessory Prayers다같이 All Together

주기도문 The Lord's Prayer다같이 All Together

II 말씀 The Word

성경 봉독 Scripture Reading.....다같이 All Together

누가복음 Luke 24:13-35

설교 Sermon.....장선욱 목사 Pastor Sean Chang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Two Disciples on the Road to Emmaus

III 화답 Response

찬양 Let's Praise!다같이 All Together

H620 여기에 모인 우리 We Will Keep Our Faith

헌금 기도 Offering Prayer.....다같이 All Together

IV 파송 Sending

파송 및 축도 Sending Word and Benediction.....장선욱 목사 Pastor Sean Chang

교회 소식 THE LIFE OF THE CHURCH

- 수요 성경 공부가 다시 시작됩니다.
 - 수요일 8시 zoom: Meeting ID 401 799 0718

기도 제목 THE PRAYER LIST

- 사도행전 2장과 같은 교회가 되도록
 - 지역 봉사를 감당하는 교회
 - 보내는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
 - 세상의 희망이 되는 교회
- 선교사들을 위하여
 - 조동천 (캄보디아)
 - 이낙원 (케냐) 우리가 지원하는 아이들입니다. Fabian Kamau Eunice Wanjiku Allysa Wambui Sharlin Akai
- 주위에 어려운 일을 당한 분들을 위하여
- 주위에 아픈 분과 돌보시는 분들을 위하여
- 자녀들을 위하여
- 여행하는 분들을 위하여
- 권세자들을 위하여

THE FIRST LESSON 사도행전 ACTS 2:14, 36-41

14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36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께서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37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찢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38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39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40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41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 날에 신도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

시편 PSALM 116:1-4, 12-19

1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시므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2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3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4 내가 여호와와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12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13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와 이름으로 부르며

14 여호와와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15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16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17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와 이름으로 부르리이다

18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19 예루살렘아, 네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와 성전 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THE SECOND LESSON 베드로 전서 1 PETER 1:17-23

17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18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 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 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19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20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21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22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23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 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서신서 성경 공부

본문 함께 살펴보기

베드로전서 1:17-23 은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거룩함의 근거가 무엇인지 제시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을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라고 소개하며,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머무는 동안 경외함으로 지내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는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한 깊은 존경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이 본문의 핵심은 우리가 구원받은 '방식'에 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헛된 행실에서 해방된 것이 은이나 금 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님을 상기시킵니다. 대신,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이루어진 것임을 강조합니다. 이 구속의 사건은 창세 전부터 예정된 것이었으며,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 나타난 하나님의 확정된 사랑의 증거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이 구속의 결과가 '형제 사랑'으로 이어져야 함을 역설합니다. 진리에 순종하여 영혼을 깨끗하게 한 성도들은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러야 합니다. 이는 썩어질 씨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 곧 살아 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들의 필연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말씀 속에 담긴 믿음의 주제들

1. 대속의 가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The Value of Redemption: The Precious Blood of Christ)

우리의 가치는 세상의 경제적 가치로 매겨지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은이나 금처럼 변하고 사라질 것이 아니라, 영원하며 흠 없는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몸값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는 성도의 정체성이 세상의 성취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라는 우주적인 가치 위에 세워져 있음을 의미합니다.

2. 나그네의 정체성과 거룩한 경외 (Sojourner Identity and Holy Fear)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속해 있으나 동시에 하늘 시민권을 가진 나그네입니다. '경외함으로 지내라'는 권고는 심판주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의 무게를 인식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도 그분의 공의로운 심판을 기억하는 것은, 방종에 빠지지 않고 거룩한 긴장감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비결입니다.

3. 말씀의 영원성과 거듭남 (The Eternity of the Word and Rebirth)

인간의 육체와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이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바로 이 '살아 있는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말씀은 단순히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생명을 잉태하는 '씨'와 같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의 씨앗을 품은 자들은 썩어질 세상의 가치관을 거부하고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삶으로 변화됩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 돌아보기

오늘날 우리는 종종 우리의 가치를 연봉, 학벌, 혹은 소유한 자산의 양으로 평가하곤 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은과 금으로 살 수 없는 그리스도의 피로 산 존재임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의 가치를 깨닫는다면, 남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비하하거나 반대로 교만해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자존감은 십자가에서 확증되었습니다.

또한 '나그네'로서의 삶은 우리에게 소유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라고 도전합니다. 여행자가 호텔의 가구에 집착하지 않듯, 우리도 언젠가 떠날 이 땅의 것들에 모든 마음을 쏟아서는 안 됩니다. 대신 우리는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아버지' 앞에서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았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고 있는지 정직하게 성찰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믿음이 관념에 머물지 않고 '형제 사랑'이라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권면합니다. 이는 감정적인 이끌림을 넘어, 진리에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한 자들이 마땅히 맺어야 할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있다면, 그 생명력은 반드시 내 곁의 이웃을 향한 구체적인 사랑과 섬김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나누기 위한 질문들

1. 베드로는 우리가 은이나 금이 아닌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다고 말합니다. 이 사실이 당신이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에 어떤 변화를 줍니까?
2. '나그네'로 산다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할 때가 많습니다. 최근 당신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 때문에 포기하거나 인내해야 했던 부분은 무엇입니까?
3.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권면을 실천하기 위해, 우리 공동체나 가정에서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할 '깨끗한 마음'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실천을 위한 실행 계획

1 일차: 가치 인식 (Value Awareness) - 나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애썼던 일들(돈, 명예 등)을 적어보고, 십자가 아래 내려놓기.

2 일차: 거룩한 경외 (Holy Fear) - 오늘 하루 모든 행동과 말 이전에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의식하며 살기 (코람 데오).

3 일차: 말씀 묵상 (Living Word) - 베드로전서 1:23 을 손글씨로 적어 눈에 잘 띄는 곳에 붙이고 하루 세 번 낭독하기.

4 일차: 순종의 정결 (Purity through Obedience) - 내 마음속에 형제를 향한 미움이나 비판이 있다면,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여 용서하기로 결단하기.

5 일차: 뜨거운 사랑 (Deep Love) - 공동체 구성원 중 한 명에게 구체적인 격려의 메시지나 작은 선물을 전하며 사랑 표현하기.

마무리 묵상과 공동의 기도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 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베드로전서 1:23)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썩어 없어질 세상의 가치에 매몰되어 살던 저희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지내는 동안, 심판주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거룩한 경외함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안에 심겨진 썩지 않을 생명의 말씀이 자라나, 가식 없는 진실한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게 하소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THE GOSPEL 누가복음 LUKE 24:13-35

- 13 그 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이십오 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 14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 15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 16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 17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 18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 19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 20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 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 21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 22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 23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 24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 25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 26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 27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 28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 29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 30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 31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 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 32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 33 곧 그 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 34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 35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